

'여자 축구 전설' 지소연, WK리그 수원FC 위민 복귀

등록 2026.01.06 16:38:46



[서울=뉴시스] 여자축구 WK리그 수원FC 위민의 지소연. (사진=수원FC 위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 여자 축구의 전설로 평가받는 지소연(35)이 WK리그 수원FC 위민으로 돌아왔다.

수원FC 위민은 2026시즌을 앞두고 '여자축구 최고의 선수' 지소연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2022~2023시즌 수원FC 위민에서 활약했던 지소연은 2년 만에 다시 수원 유니폼을 입고 WK리그 무대에 복귀한다.

지소연은 2011년 아이낙 고베 레오네사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잉글랜드 첼시FC 위민에서 장기간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선수다.

잉글랜드에서 한국 무대로 옮기며 수원FC 위민을 선택했던 지소연은 이후 시애틀 레인 FC(미국)와 버밍엄 시티 WFC(잉글랜드)를 거쳐, 다시 한번 수원FC 위민을 선택했다.

수원FC 위민 측은 "2023시즌 WK리그 우승 문턱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경험한 뒤 팀을 떠났던 지소연의 복귀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연은 별도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한국 여자 축구 최고의 선수로서 팀의 중심을 또다시 책임진다"며 "구단은 경험과 리더십, 실력까지 모두 갖춘 지소연의 복귀가 팀에 확실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 출신 최유리, 김혜리에 이어 지소연까지 합류한 수원FC 위민은 WK리그는 물론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한층 더 탄탄한 전력으로 나설 거로 보인다.

지소연은 "한국에 돌아온다면 꼭 수원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돌아와서 기쁘다"며 "수원FC 위민이 한 번 더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